

세종로의 변화와 ‘한국의 품격’ 보여주기

김정화*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이 연구는 세종로 경관의 변화 과정을 한국 현대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종로의 경관과 이용 성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세종로 경관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관은 사회를 보여주는 매체이다. 경관은 인간과 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에 사회의 다양한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Short, 1996; Mumford, 1970). 이때 읽어낼 수 있는 사회의 사실들은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지향점, 신념체계이다. 코스그로브는 “경관이란 외부세계를 보는 방식(Landscape is a way of seeing the world)”이라고 정의하며(Cosgrove, 1984: 13), 경관이 사람의 관점과 세계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고, 킹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사회의 신념체계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형태 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King, 1980: 8).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동인으로 바라보며, 특히 사회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고 강화되는 경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간 세종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간의 형태를 논하거나(김송미 등, 2011; 박윤진 등, 2011; 문현영 등, 2011), 건축물 광화문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하상복, 2009), 도시 경관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읽기 위한 소재로 다룬 연구(김효중, 2001; 정영호, 2011) 등 근대 이전의 변화 또는 공간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현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세종로 변화를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연구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세종로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슈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이슈 파악을 위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종로의 공간 변화와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내 종합일간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높은 조선일보를 선정하였고, 검색 서비스(srchdb1.chosun.com)를 통해 1945년 8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 중 제목이나 주제에 ‘세종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190건의 기

사 중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제외하고 총 124건의 신문기사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둘째, 이슈의 변화 흐름을 기준으로 세종로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셋째, 기사 본문을 통해 시기별 세종로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지도와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관 변화를 추적하였다. 변화 과정 중에서 세종로에 새로 나타나거나 사라진 경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강화되거나 지속하고 있는 경관을 찾으려 하였다.

II. 세종로의 변화

분석 결과, 세종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특징적 흐름으로 나뉘었다.

1. 흐뭇한 장관과 역사 재건(해방 후~1965)

첫째, 국가 행사가 세종로의 주요 이슈였으며, 시민회관 건축, 청사 건축이 이루어졌던 때이다. 당시 세종로에서는 대통령 탄신일, 국군의 날, 미국 대통령 환영 등의 이유로 국가 행사가 벌어졌고, 특히 군 퍼레이드가 잦았다. 이때의 신문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세종로 행사의 장관(spectacle)을 ‘흐뭇한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세종로는 한국의 자랑스러움과 역사 재건을 확신시켜주는 의례가 연출되는 무대였다.

2. 기술력과 민족정신(1966~1981)

1960년대 중반부터 교통난은 세종로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가 건설되었다. 서울시는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지하도를 “4방 논스톱의 입체교차로”로 지을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완공된 지하도를 국산 재료, 동양 최대 규모, 뛰어난 조명시설 등으로 설명하며 자랑하기도 하였다. 청사 신축과 세종문화회관 건설 과정에서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공법이라든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시도된 공법이라는 등의 내용이 따라 붙었다. 이 시기 세종로는 국내 기술력의 총아가 발현되어 국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3. 국가상징거리를 위한 규제(1981~1995)

1981년 도시미관기준이 마련되어 세종로가 도시설계 구역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1982년 11년간 세종로에 서 있던 대형 철제 아치가 철거되었다. 또한 1983년부터 세종로는 '국가상징가로'로 지정되어 페인트 색을 바꾸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세종로의 격이 유지되기 위하여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었다.

4. 정통성 재확인(1995~2005)

1995년 세종로에서 조선총독부가 철거되었다. 조선총독부 철거를 주제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는데, 철거와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 모두 공통적으로 역사 되찾기를 강조하였다. 유사한 경우로 서울시가 세종로를 보행벨트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 계획 단계에서 은행나무는 일제강점기에 심겨졌던 이유로 시민들에게 '식민지 유산'으로 인식되어 주변으로 이식되었다.

한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종로는 항상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과 함께 등장하였다. 지구의 날, 시민의 날의 행사를 비롯해 세종로는 다양한 축제의 중심이 되었다. 이때 시민들이 체험한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도시에서 민족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는(Short, 1996: 337) 전통놀이였다. 세종로는 민족성과 정통성을 지지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 시기 우리 고유의 것만이 세종로에 존재할 자격이 된다는 정통성 논리가 세종로에 변화를 가져왔다.

5. 역사 보여주기(2006~현재)

세종로 광장의 방향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종대왕과 한글탑을 도입하여 세종로를 '한글의 거리'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0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등장하였으며, 2011년 '한글 마루지' 계획 등 광화문광장이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도 세종로를 통해 한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보여주기는 세종로를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즐겨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한 오늘날 서울시의 노력은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화'(Harvey, 1989)로 볼 수 있다.

III. 맺는 말

시기마다 세종로의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관통하는 정신은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흐릿한 장관, 자랑스러운 기술력으로 형성된 도시기반시설, 도시미관을 위한 규제, 정통성 재확인, 역사 보여주기의 바탕에는 민족의 자부심과 정통성이라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방 이후 세종로는 줄곧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곳이었으며, 변화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 표출된 행위였다. 또한 오늘날에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중심으로 세종로의 이미지화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송미, 김현경, 송희진(2011) 광화문 광장 디자인: 마유미, 세르지오, 마려화, 손현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4(6): 32-53.
2. 김효중(2001) 한국 현대사와 건축. 한문학 73: 343-365.
3. 문현영, 윤재은(2011) 광화문 광장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 이용행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2(4): 129-137.
4. 박울진, 강대진, 박원제(2011) 광화문광장 플라워 카펫(Flower Carpet) 디자인 계획.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4): 11-19.
5. 정영효(2011) 김기림의 '광화문(통)', 소멸과 신생의 거리. 한국어문학회지 111: 389-414.
6. 하상복(2009) 광화문의 정치학 : 예술과 권력의 재현. 한국정치학회지 43(3): 77-98.
7. Cosgrove, D.(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Barns & Noble Books.
8.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9. King, D. A.(1980) Building and Society: Essays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Built Environment, ed. A. D. King, Routledge and Kegan Paul.
10. Mumford, L.(1970) The Culture of Cities, A Harvest/HBJ Book.
11. Short, J. R.(1996) The Urban Order. 이현욱, 이부귀 옮김.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서울: 한울, 2001.
12. <http://srchdb1.chosun.com>